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10/2~1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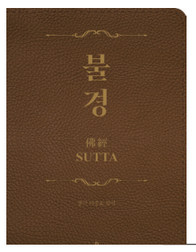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성자와범부가함께읽는금강경(개정판)	김원수 지음	바른법연구원	6	보리도차제광론1(나란다불교학술원총서1)	쫑카파	도서출판나란다
2	화:마음의불꽃을식히는지혜	틱낫한/허우서,허주형	운주사	7	숫타니파타:불멸의언어(양장)선물용경전	석지현 옮김	민족사
3	요가디피카(아헹가요가시리즈1)육체의한계를넘어	아헹가/현천 역	선요가	8	중론:산스끄리뜨게송의문법해설을겸한(개정본)	용수 지음/청목 주석	오타쿠
4	불멸(1)영원한지금의메시지*개정판	이각 지음	지혜의눈	9	중관학특강:색즉시공의논리	김성철	오타쿠
5	구루빠드마쌈바와기원문(연꽃에서화생한불사의화신불)	중암선혜 역저	금빛소리	10	우리는늘바라는대로이루고있다(선지식의크신사랑)양장본	김원수 지음	바른법연구원

책세상

방대한 경전 '불경'으로 엮어내다

〈佛經〉



불경(佛經)
중각 이중표 편역
불광출판사/ 7만원

율장, 4부 니까야 등 경전 내용
핵심만을 선별해 정리한 대작
이중표 교수 50년 서원 담겨져
"불교의 중심 불상서 불경으로"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중각 이중표 명예교수는… 전남대 철학과를 졸업한 뒤 동국대학교 대학원에서 불교학 석 ·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전남대학교 철학과 교수로 재직했으며, 정년 후 동 대학교 철학과 명예교수로 위촉됐다. 호남불교문화연구소 소장, 범한철학회 회장, 불교학연구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불교 신행 단체인 '붓다나라'를 설립하여 포교와 교육에 힘쓰고 있다. 저서로는 〈인간 붓다〉〈정선 디가 니까야〉〈담마빠따〉〈근본불교〉〈현대와 불교사상〉 등이 있다.

"기독교에 성경, 이슬람교에 코란이 있다면 불교에는 '불경(佛經)'이 있습니다."

9월 30일 만난 중각 이중표 전남대 명예교수는 한권으로 묶어낸 〈불경(佛經)〉의 필요성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초기불교 석학 이중표 교수가 평생의 불교 공부를 집약해 세계 최초로 한글 불경을 번역해 엮어냈다. 불교에는 수많은 경전이 존재하지만, 모든 불자가 기본적으로 알고 삶의 지침으로 삼아야 할 '단 하나'의 성전(聖典)은 없었다. 조계종 포교원 등이 간행한 〈불교성전〉이 있지만, 대승경전의 좋은 말씀만을 발췌해 엮다보니 이를 보고 불교의 요체를 파악하기는 어려웠다는 게 이중표 명예교수의 설명이다.

이중표 명예교수가 〈불경〉 간행의 원력을 세운 것은 2007년 교환교수로 미국에 방문하면서 부터다. 미국인들이 불교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공부하는 것을 목도했는데, 대부분 달라이 라마나 틱낫한 스님의 가르침에 의지하고 있었다. 불교경전을 통한 불교 공부가 이뤄지지 않는 것을 본 이중표 교수는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불경〉의 필요성을 느끼고 귀국과 동시에 실행에 올렸다. 그 과정에서 나온 것들이 '정선 니까야' 시리즈와 〈인간 붓다〉 등이다. 이중표 교수는 "결국 〈불경〉 한 권을 위해 16년 동안 모든 저작들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1448페이지, 총 7부로 구성된 이 책은 먼저 〈율장〉에 근거해 석가모니 붓다가 성불하고, 전법하고, 계율을 제정하고, 교단을 형성한 과정과 붓다 사후 이뤄진 결집에 이르기까지의 역사를 소개한다. 이어서 〈디가니까야〉 〈맛지마니까야〉 〈상윳따니까야〉 〈앙굿따라니까야〉 〈숫따니빠따〉 〈담마빠다〉에 담긴 붓다 가르침의 정수를 펼쳐 보인다.

방대한 양의 경전을 한 권으로 압축하는 일만 해도 쉬운 작업이 아니지만, 이 책이 특별한 이유는 다른 데 있다. 바로 직관적으로 붓다의 가르침을 알 수 있다는 점이다. 불교 공부가 어려운 이유는 봐야 할 책이 많아서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무리 많은 책을 읽어 봐도 '그렇구나' 하고 완벽히 이해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본래 붓다의 가르침은 어렵거나 복잡하지 않다.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을 만큼 명확하고 실용적이다. 다만 가르침에 대한 분명한 이해 없이 경전을 번역하고 풀이하다 보니 말과 글이 점차 어려워진 것이다.

어찌 보면 〈불경〉은 10대에 불교를 접한 이후 불교 지성인으로 살았던 이중표 명예교수의 발원공력이 한데 담긴 것이기도 하다.

기자간담회에 나온 이중표 명예교수는 삭발염의를 한 상태였다. '중각'이란 법명도 썼다. 젊은 시절 이중표 교수는 조계종으로 출가해 스님으로서 삶을 살았다. 대학 졸업 후 불교학을 좀 더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싶었지만, 은사스님은 사찰로 돌아와 소임을 볼 것을 권했다. 결국, 이중표 교수는 환속을 선택하고 불교학 연구자이자 교육자로 살았다.

정년퇴임 이후 대중 강연 등을 통해 불교 포교에 힘써오던 중 오래 전부터 인연이 있었던 태고종의 수진 스님에게 출가를 권유받았다. 고민 끝에 수진 스님 문하로 다시 출가했다. 종단에서 진행하는 수계산림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이중표 명예교수는 〈불경〉을 활용한 법회·신행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어린이용 〈불경〉도 펴낼 계획이다. 노장은 한껏 기대감을 표하며 말했다.

"이제 불교의 중심을 불상(佛像)에서 불경(佛經)으로 이동할 것입니다."

태고종 발행 월간 '불교' '100주년 기념호' 나왔다

태고종(총무원장 상진 스님)이 발행하는 월간지 월간 〈불교〉가 올해로 100주년을 맞아 기념호를 간행했다.

태고종의 월간 〈불교〉는 1924년 일제강점기에 창간되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선교양종을 표방하며 문서포교를 선도하는 불교 잡지의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다.

창간 이후 월간 〈불교〉는 맹목적이고 구태의연한 신앙 행태에 변화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잡지에 게재된 교리, 사상, 문학, 어학 등의 내용은 불자들의 지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일제강점기 한국불교의 정체성과 시대정신을 선도하는 길잡이가 됐다.

월간 〈불교〉는 일제강점기와 근대 시기에 폭넓은 세계관을 제시해 주었고 이로 말미암아 세계를 향해 열린 불교 지식인들의 세계관과 해외 유학 경험은 국내의 대중들과 공유됨으로써 한국불교의 수준을 월등하게 성장시키는 역할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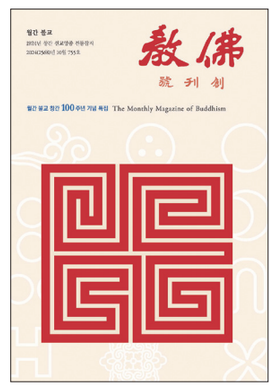
월간 〈불교〉의 창간은 구태에 젖은 불교계를 변화시키고 불교개혁을 염원하던 불자 대중의 갈망을 수용한 결과였다.

월간 〈불교〉의 시대사상과 핵심 가치는 지면에 담긴 시대인식과 한국불교의 동향과 내용이 오늘의 불자 대중과 사회가 바라보는 불교의 현실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데 있다.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100주년 기념호(755호)를 발간하면서 권두언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월간 〈불교〉는 태고 보우 국사의 원융사상, 교와 선사상, 보살사상에 입각하여 선각자들에 의해 한국불교계와 승가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여법한 분석과 통찰에 의해 기획·간행되었습니다. 월간〈불교〉과거 100년의 역사와 정신, 그리고 전통성을 간직하며, 미래 100년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일심(一心)으로 한국불교와 승가의 대중화와 세계화를 위하여 간행될 수 있도록 정진하겠습니다."

100주년 특집호는 총무원장 상진 스님의 휘호를 비롯한 각계의 축하 메시지와 월간 〈불교〉의 역사성과 가치를 주제로 김종진(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 김경집(동국대불교학술원 연구교수), 김성연(동국대 K학술확산연구소 연구초빙교수)의 특집 원고를 싣고 있다.



월간 〈불교〉 100주년 기념호 표지

1924년 창간, 현재까지 간행
한국불교 시대정신 선도해 와
상진스님 "미래 백년 이을 것"

김종진 교수는 특집 원고에서 〈불교〉지 100년의 성과를, 과거·현재·미래를 위한 자산으로 삼기 위해서는 결호를 온전히 하여 잡지의 보존상태를 보완할 것과 DB구축을 통하여 AI시대의 불교문화 대장경으로서의 자격을 완성할 것을 요청했다.

김경집 교수는 월간 〈불교〉가 100년 동안 걸어온 길은 대중들에게 불교를 알리는 역할이었음과 대중들이 월간 〈불교〉를 통해 신앙적 방향과 불교문화의 이해를 넓힐 수 있었다는 점은 한국 근현대불교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사실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김성연 교수는 월간 〈불교〉의 역사에서 잊을 수 없는 만해 한용운과 그의 사상의 계승과 대중화를 통해 〈불교〉의 내면에 흐르고 있는 만해 정신을 기억할 것을 주장했다.

100주년 기념호의 표지는 창간 100년의 역사를 기리는 의미로 1924년 창간호의 표지를 그대로 인용했다.

태고종은 "월간 〈불교〉100주년 기념호는 월간 〈불교〉가 지난 100년 동안 격변의 시기를 거치면서 걸음을 멈추지 않은 것처럼 앞으로의 100년도 그 사명을 다할 것을 내외에 천명하는 지난 100년의 결산"이라고 밝혔다.

신중일 기자

『축의 시대』 & 『신의 역사』 저자
세계적인 종교학자 카렌 암스트롱이 제안하는
'인류 회복 프로젝트'!

"어떤 사람이 어떤 종교의 신자인가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좋은 인간으로 머무는 것이다."
- 달라이 라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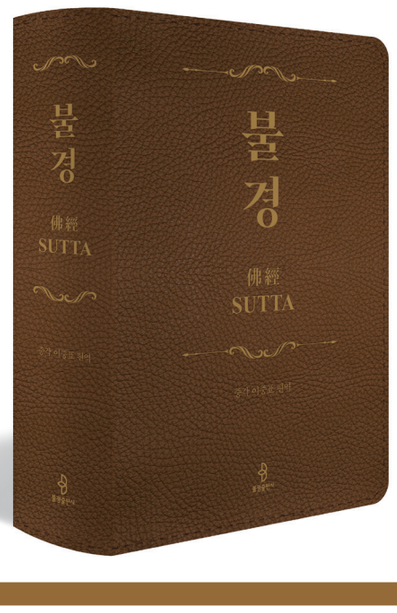
우리의 선한 본성을 일깨워
상처 없는 세상으로 나아가는
열두 단계 실천법

상처 주지 않을 결심
이기적 본능을 넘어서는 공감의 힘
카렌 암스트롱 지음 | 권혁 옮김
264쪽 | 20,000원

"기독교에 성경, 이슬람교에 코란이 있다면
불교에는 불경(佛經)이 있다"

붓다의 가르침을 집약한 세계 최초의 한글 불경(佛經)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석학
이중표 교수의 50년 염원이 깃든 역작
'불상(佛像)에서 불경으로',
불교 공부와 수행의 전환을 선언하다!



출간즉시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종교분야 베스트셀러!

불경 佛經
중각 이중표 편역
1,448쪽 | 70,000원 | 가죽 양장

불광출판사 전화 02) 420-3200 | www.bulkwang.co.kr | 불광미디어